

7월 자동차 판매

싼타페TM 미국 판매 시작

■ 7월 현대기아차 도매판매 - 영업일수 감소 영향은 제한적

현대차 도매판매는 전년동기비 6.5% 감소한 34만대를 기록했다. 내수에서는 부분파업, 하계휴가 등 영업일수 2일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소세 인하 효과로 전년동기비 1.3% 증가한 6만대를 판매했다. 해외생산 도매판매는 전년동기비 8.0% 감소한 28만대를 기록했다. 미국, 터키, 브라질, 러시아 영업일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라인 정비를 통한 생산성 향상, 신차투입을 위한 라인조정으로 중국공장이 일주일간 가동 중단된 영향이 컸다. 기아차 도매판매는 전년동기비 5.4% 증가한 23.1만대를 기록했다. 내수판매는 신형 K3, K9, 카니발 F/L 신차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소세 인하 조치 영향으로 전년대비 9.2% 증가한 4.7만대를 기록했다. 해외 도매판매는 전년동기비 4.4% 증가한 18.4만대를 기록했다. 특히 러시아, 중남미, 아중동 등 대부분 신흥시장에서 고른 판매 성장을 보이며 전년동기비 12.4% 증가한 7만대 판매를 기록했다.

■ 7월 미국 자동차 판매 - 영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3.7% 감소

7월 미국 자동차 판매는 소비심리 개선 지속과 낮은 실업률과 같은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에도 불구하고 영업일수 1일 감소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3.7% 감소한 136.5만대, SAAR(계절조정연환산대수)기준으로는 1,673만대를 기록했다.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 경제 성장을 둔화, 휘발유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요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 투자전략 - 싼타페TM 미국 판매량에 주목

7월 미국에서 싼타페TM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7월 판매량에 주목했지만 1,461대라는 판매량은 다소 충격적이다. 하지만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고 판단된다. 싼타페TM은 6월 9,929대, 7월 9,016대 생산되었다. 아직까지 생산이 판매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8월까지의 구형 모델이 섞인 판매가 일어나겠지만 싼타페 전체 판매량은 늘기 시작할 것이다. 딜러망에 공급이 완료되는 9월부터는 온기로 TM 판매가 이뤄질 것이다. 이번 달 미국 싼타페 판매량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 반영시기가 조금 늦춰진 것뿐이다.

Analyst 강동욱

(2122-9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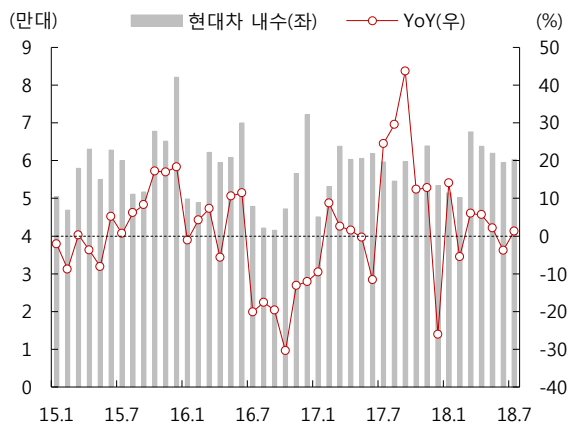
dongwook.kang@hi-ib.com

7월 현대차 도매판매

중국공장 가동 중단 > 내수 개선세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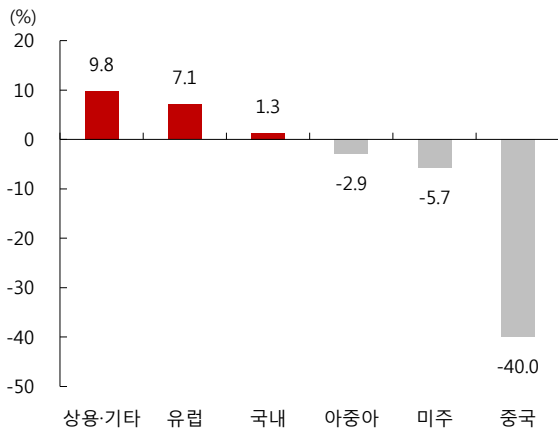
현대차 도매판매는 전년동기비 6.5% 감소한 34만대를 기록했다. 먼저 내수에서는 부분파업, 하계휴가 등 영업일수 2일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선세 인하 효과로 전년동기비 1.3% 증가한 6만대를 판매했다. 이번 달에도 RV급 판매 호조와 승용차급 부진은 이어졌다. RV 차급은 전년동기비 56.8% 증가한 1.8만대가 판매되었다. 싼타페는 7월에도 9,893대가 팔리며 신차효과를 이어갔고, 코나는 EV를 포함해 4,917대가 팔리며 꾸준한 판매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기준 도매판매는 전년동기비 11.6% 감소한 8만대로 재고 소진을 위한 공급 컨트롤 여파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생산 도매판매는 전년동기비 8.0% 감소한 28만대를 기록했다. 미국, 터키, 브라질, 러시아 영업일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라인 정비를 통한 생산성 향상, 신차투입을 위한 라인조정으로 중국공장이 일주일간 가동 중단된 영향이 컸다. 중국지역은 전년도 사드 기저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비 40% 감소하며 판매 감소의 주된 원인을 제공했다.

<그림 1> 내수시장 현대차 판매 및 전년동기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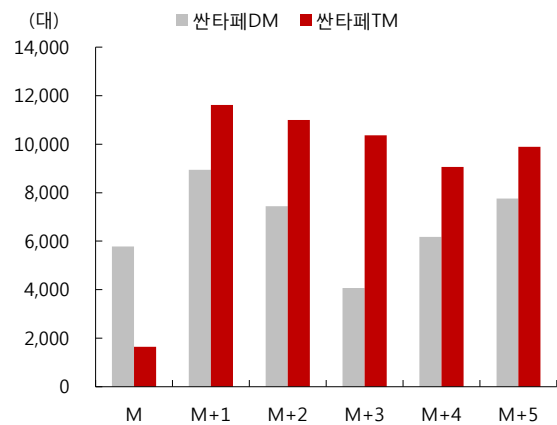
자료: 현대차, 하이투자증권

<그림 3> 현대차 도매판매 기준 지역별 판매 전년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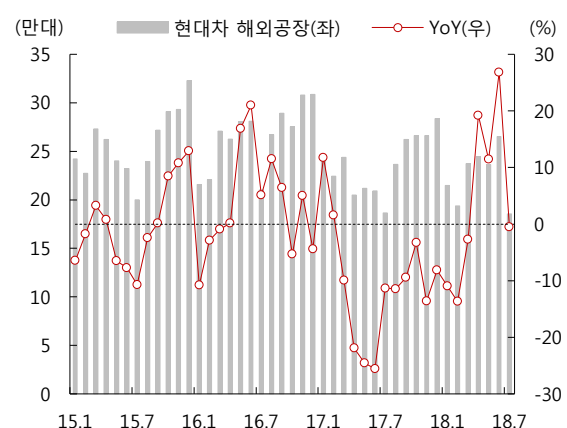
자료: 현대차, 하이투자증권

<그림 2> 내수시장 싼타페 출시 후 6개월 판매 추이



자료: 현대차, 하이투자증권

<그림 4> 현대차 해외공장 생산 및 전년동기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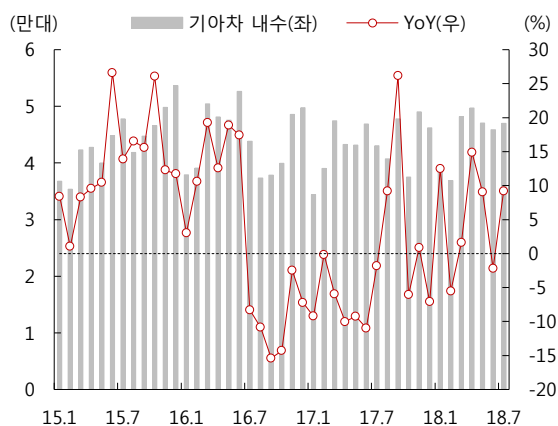
자료: 현대차, 하이투자증권

7월 기아차 판매

중국에서 어려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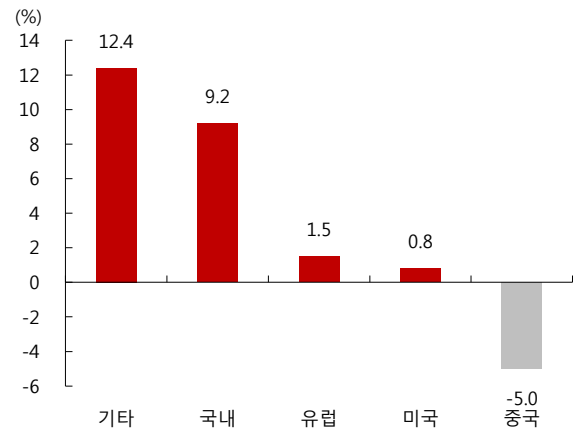
기아차 도매판매는 전년동기비 5.4% 증가한 23.1만대를 기록했다. 내수판매는 신형 K3, K9, 카니발 F/L 신차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소세 인하 조치 영향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한 4.7만대를 기록했다. 승용차급에서는 최근 출시된 신형 K3, K9과 K5 F/L가 전년동기비 높은 증가를 기록하며 판매를 이끌었다. RV차급에서는 카니발 F/L가 전년동기비 19.4% 증가한 7,474대가 팔리며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연속으로 기아차 월간 판매차종 중 가장 많이 팔린 모델에 올랐다. 해외 도매판매는 전년동기비 4.4% 증가한 18.4만대를 기록했다. 특히 러시아, 중남미, 아중동 등 대부분 신흥시장에서 고른 판매성장을 보이며 전년동기비 12.4% 증가한 7만대 판매를 기록했다. 중국에서는 전년도 사드 기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비 5% 감소한 1.9만대를 기록하며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5> 내수시장 기아차 판매 및 전년동기비 증감



자료: 기아차, 하이투자증권

<그림 6> 기아차 도매판매 기준 지역별 판매 전년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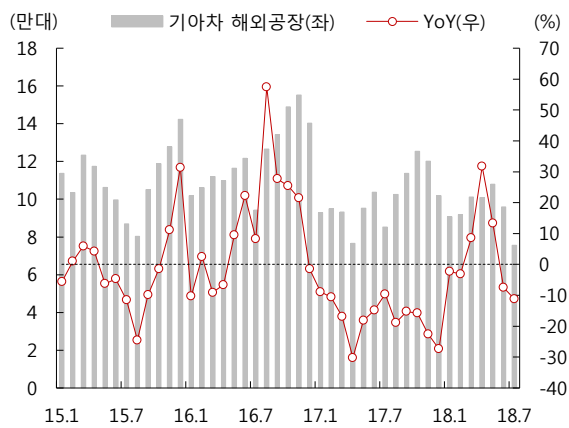


자료: 기아차, 하이투자증권

글로벌 공장출하판매는 전년동기비 7.1% 감소한 20만대를 기록했다. 모든 공장에서 전년동기비 (-) 흐름을 보였다. 국내공장은 부분파업과 수출출하 물량 부진으로 전년동기비 4.5% 감소한 12.5만대를 기록했다. 미국공장은 6월부터 신타페 위탁생산이 종료됨에 따라 전년동기비 16.5% 감소한 1.8만대를 기록했다. 조지아공장 Capa 대비 신타페 물량을 고려한다면 생각보다 감소 폭이 작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멕시코공장은 전년동기비 영업일수 4일 감소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17.9% 감소한 1.8만대를 기록했다. 슬로박공장은 Venga 단산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4.7% 감소한 2.1만대를 기록했다. 글로벌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비 1.1% 증가한 23.4만대를 기록했다. Big 2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YoY +4.7%), 기타 신흥시장(YoY +4.5%)에서 선전이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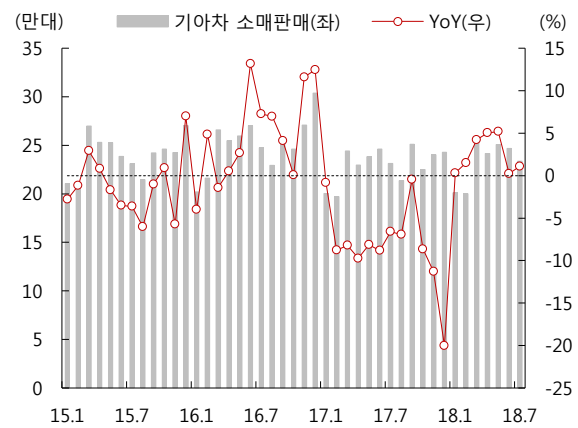
Big 2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전년도 사드 기저효과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중국공장 출하는 전년동기비 5% 감소한 1.9만대를 기록했다. 중국 전략형 SUV 즈파오의 판매차종 간 간섭효과가 이번 분기에도 이어졌다. 즈파오는 9,774대가 출하되며 기아차 중국 생산차종 중 가장 많은 출하대수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볼륨모델인 K3(YoY -59.6%), 스포티지(YoY -97.6%)는 큰 폭의 출하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소매판매 역시 전년동기비 11.1% 감소한 2.4만대를 기록했다. 특히 K3와 스포티지 소매 판매는 각각 전년동기비 45.4%, 81.7% 감소했다. 판매차종간 간섭효과로 인해 즈파오에 소매판매가 몰리고 있고, 이에 따라 공장출하량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공장 가동률 하락으로 직결되며,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가동률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중국에서의 차종별 소매판매, 공장출하는 앞으로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림 7> 기아차 해외공장 생산 및 전년동기비 증감



자료: 기아차, 하이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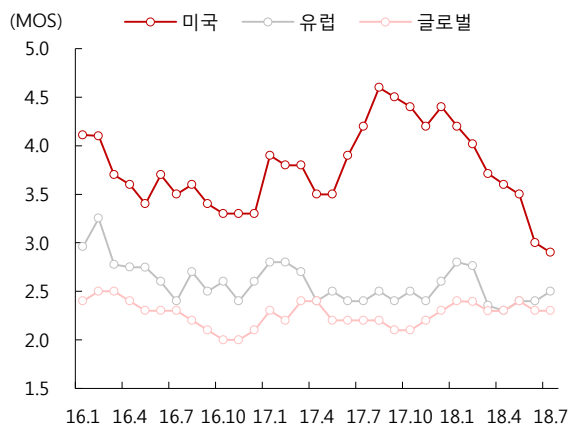
<그림 8> 기아차 글로벌 소매판매 및 전년동기비 증감



자료: 기아차, 하이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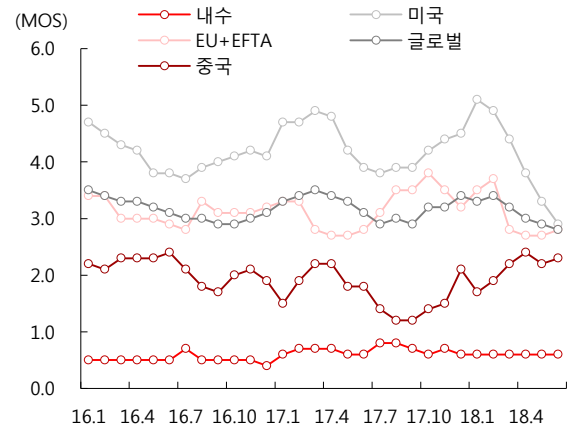
연초부터 가장 큰 문제였던 미국 재고는 현대, 기아차 모두 적정 재고수준까지 떨어졌다. 현대차는 6월 3.0개월까지 하락한 후 7월 2.9개월까지 하락했다. 기아차 역시 6월 2.9개월 수준까지 감소한 바 있다. 미국에서 재고 문제는 어느정도 일단락된 것 같다.

<그림 9> 현대차 재고 추이 - 미국 2.9개월까지 하락



자료: 현대차, 하이투자증권

<그림 10> 기아차 재고 추이 - 적정 재고수준 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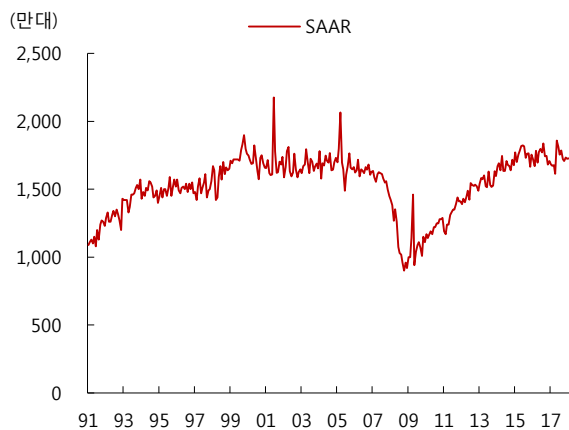
주: 18년7월 재고 미집계
자료: 기아차, 하이투자증권

7월 미국 자동차 판매

영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3.7%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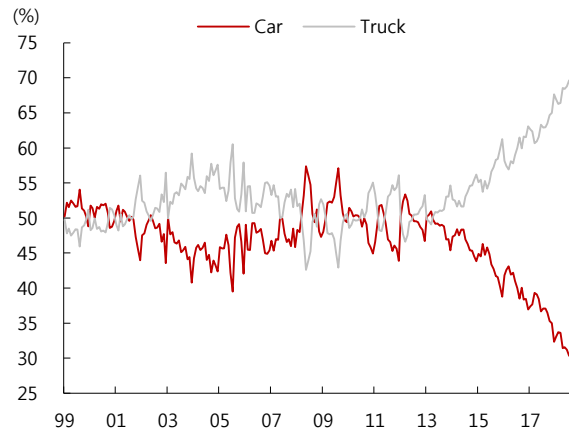
7월 미국 자동차 판매는 소비심리 개선 지속과 낮은 실업률과 같은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에도 불구하고 영업일수 1일 감소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3.7% 감소한 136.5만대, SAAR(계절조정연환산대수)기준으로는 1,673만대를 기록했다. SAAR 기준으로는 허리 케인 하비 영향을 받았던 17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 소비자들의 높은 LT 선호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이번달 LT 판매비중은 69.7%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 경제 성장률 둔화, 휘발유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요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그림 11> 미국 자동차 SAAR 추이 - 7월 1,673 만대 기록



자료: Automotive News, 하이투자증권

<그림 12> 미국시장 Car, LT 판매비중 추이 - LT 69.7%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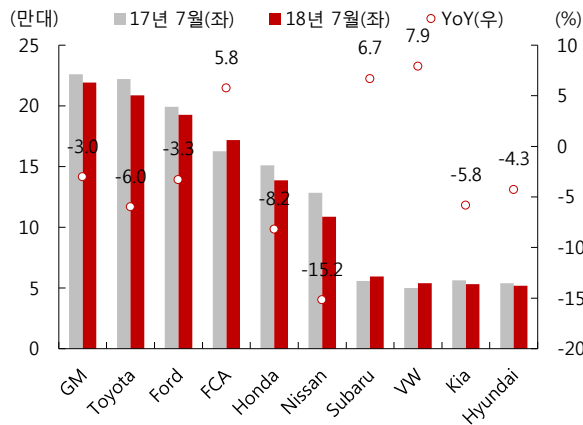
자료: Automotive News, 하이투자증권

주요업체들 중 FCA, VW, Subaru만이 전년동기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GM은 인센티브 사용을 18.7%나 늘렸으나 판매는 전년동기비 3.0% 감소했다. Ford는 수요 감소로 인해 전년동기비 3.8% 감소했다. 반면 FCA는 Jeep이 15% 증가한 79,906대를 판매하며 Ram과 함께 판매 성장을 견인했다. 일본 빅3는 도요타가 전년동기비 6.0%, 혼다가 8.2%, 닛산이 15.2% 감소하며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현대차는 전년동기비 4.3% 감소한 5.4만대, 기아차는 5.8% 감소한 5.6만대를 판매했다. 기아차가 현대차 판매량을 앞질렀다. 현대차 retail 판매는 전년동기비 소폭 증가했으나, 수익성 관리를 위해 Fleet 판매 비중을 전년동기비 51% 축소시켜 전체 판매가 감소했다. 코나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세단급 판매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신형 싼타페TM은 7월부터 판매를 개시했으나 이번 달에는 1,461대를 기록, 아직까지 생산이 판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직 구형 모델 재고소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로 8월 이후 큰 폭의 판매 성장세가 예상된다. 싼타페TM은 8월까지 딜러망에 공급이 완료된 후 9월부터 온기로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평균 인센티브는 4개월 연속 전년동기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싼타페TM 본격 판매

후 인센티브 축소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기아차는 쏘렌토와 리오가 2개월 연속 전년동기비 두자리수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옵티마가 전년동기비 37.6% 증가하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쏘울, 포르테와 같은 볼륨모델이 신차 출시 전 모델 노후화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여 전체 판매에 악영향을 끼쳤다. 기아차 평균 인센티브는 16년 9월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재고조정 완료로 증가 폭이 축소되고 있다.

<그림 13> 미국시장 업체별 판매 및 전년동기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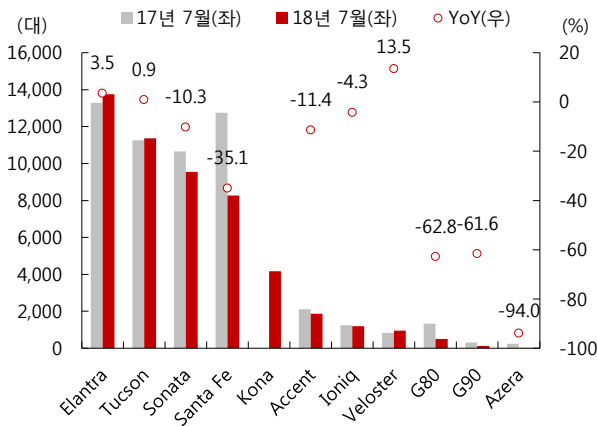
자료: Automotive News, 하이투자증권

<표 1> 미국시장 업체별 인센티브 - 산업평균 3.2% 증가

제조사	17년 7월	18년 7월	YoY
Daimler	\$4,922	\$6,056	23.0%
BMW	\$4,831	\$5,536	14.6%
GM	\$4,304	\$5,109	18.7%
FCA	\$4,479	\$4,500	0.5%
Ford	\$4,387	\$4,494	2.4%
Nissan	\$4,530	\$4,199	-7.3%
Kia	\$3,865	\$3,919	1.4%
Volkswagen	\$3,567	\$3,845	7.8%
Industry	\$3,638	\$3,754	3.2%
Hyundai	\$2,943	\$2,860	-2.8%
Toyota	\$2,861	\$2,346	-18.0%
Honda	\$2,046	\$1,917	-6.3%
Subaru	\$1,099	\$1,583	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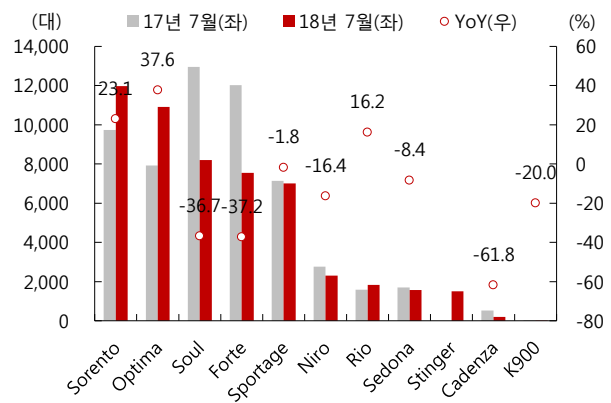
자료: Automotive News, 하이투자증권

<그림 14> 현대차 미국 차종별 판매 및 전년동기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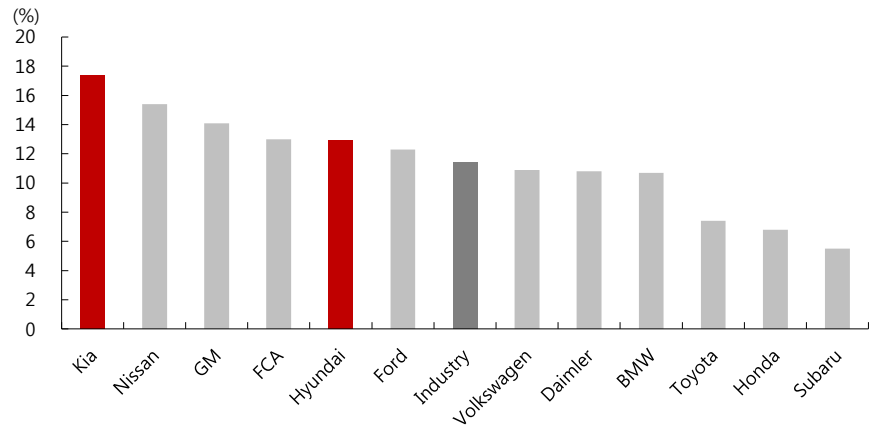
자료: 현대차, 하이투자증권

<그림 15> 기아차 미국 차종별 판매 및 전년동기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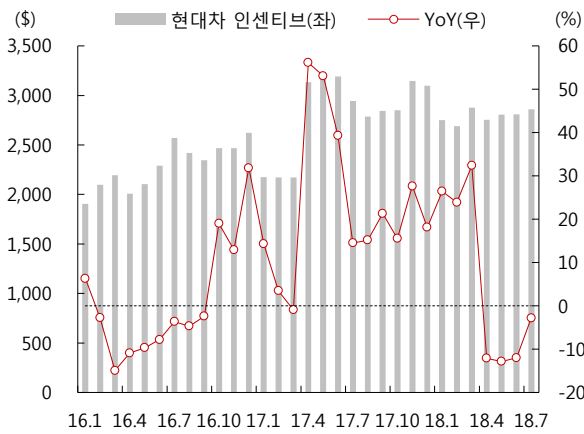
자료: 기아차, 하이투자증권

<그림 16> 18년 7월 업체별 차량 평균단가 대비 인센티브 비중 - 현대, 기아차 평균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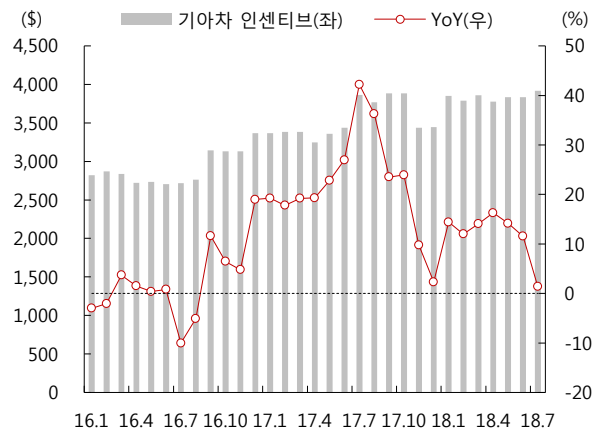
자료: ALG, 하이투자증권

<그림 17> 현대차 미국 인센티브 및 전년동기비 증감 추이 - 4개월 연속 전년동기비 감소



자료: 현대차, 하이투자증권

<그림 18> 기아차 미국 인센티브 및 전년동기비 증감 추이 - 재고조정 완료에 따른 증가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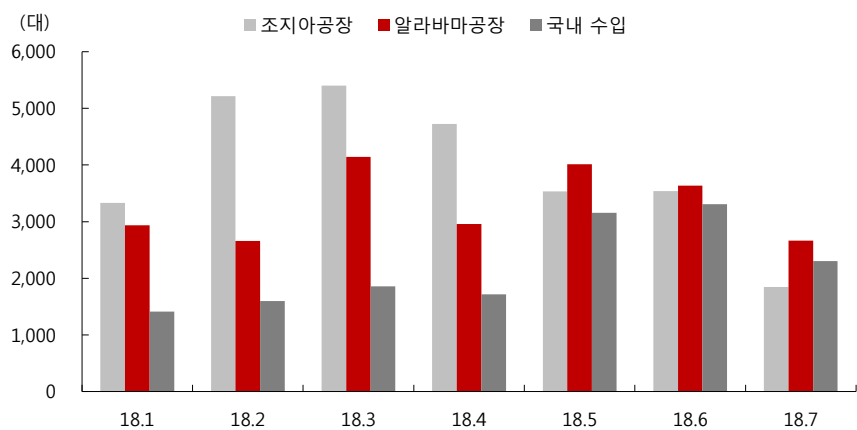
자료: 기아차,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

싼타페TM 미국 판매량에 주목

싼타페TM이 몰고 올 선순환을 기다리고 있다. 하반기 전망에서부터 싼타페TM의 미국 판매를 강조해왔다. 싼타페TM은 현대차그룹의 새로운 신차 싸이클 시작인 차종이기 때문이다. 7월 미국에서 싼타페TM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7월 판매량에 주목했지만 1,461대라는 판매량은 다소 충격적이다. 하지만 아직 성공여부를 속단하기 이르다고 판단된다. 기아차 조지아공장 위탁생산 종료 후 싼타페TM은 현대차 알라바마공장에서만 생산된다. 싼타페TM은 6월 9,929대, 7월 9,016대 생산되었다. 아직까지 생산이 판매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신형 모델은 판매하기 전 우선적으로 구형 모델 재고 소진이 필요하다. 이번달 미국 싼타페 판매 8,275대 중 6,814대가 구형 모델이다. 특히 조지아공장 생산 구형 모델 재고가 7월 1,845대로 크게 줄었다. 8월까지의 구형 모델이 섞인 판매가 일어나겠지만 싼타페TM 판매가 증가하며 싼타페 전체 판매량은 늘기 시작할 것이다. 딜러망에 공급이 완료되는 9월부터는 온기로 TM 판매가 이뤄질 것이다. 이번달 미국 싼타페 판매량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 반영시기가 조금 늦춰진 것뿐이다. 앞으로 미국에서 싼타페TM 판매량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싼타페TM이 몰고 올 생산법인 가동률 개선, 판매법인 인센티브 감소의 선순환을 기대해 본다.

<그림 19> 미국 판매 구형 싼타페 생산공장별 판매 현황 - 구형 모델 재고소진 중, 특히 기아차 조지아공장 생산 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



자료: 현대차, 하이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강동욱)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율 등급 공시 2018-06-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자의견 비율(%)	93.9 %	6.1 %	-